

LG, 2년 만에 정상 탈환... 완성형 전력으로 미래까지 잡았다

LG KS 우승

2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두운 터널 속을 헤매던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2023년 우승 이후 2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육각형 전력으로 통합 우승에 성공, 현재와 미래를 모두 밝히며 왕조 건립을 향한 꿈도 더욱 선명해졌다.

LG는 31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플렉스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KS·7전4선승제) 5차전 한화 이글스와 원정 경기에서 4-1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시리즈 4승(1패)째를 채운 LG는 한화의 추격을 뿌리치고 2025시즌 정상에 올랐다.

2023년 이후 꼭 2년 만이다. 2013~2016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2019~2020년 SK 와이번스(현 SSG 랜더스) 감독을 지냈지만 우승과 연이 없던 염경엽 감독도 LG에서만 두 차례 팀을 정상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2023년 우승 당시 “이 우승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LG가 감탑·명문 구단으로 갈 수 있는 첫 걸음을 뒀다고 생각한다”며 왕조 건립을 향한 야망을 드러냈던 그는 보란 듯이 그 꿈을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염 감독은 바람대로 팀을 빈틈 없는 감탑으로 꾸렸다.

LG는 시즌 개막과 동시에 선두를 질주하며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마운드와 타격의 조화, 베테랑과 신예의 밸런스는 10개 구단 중 가장 탄탄했다. 공격과 수비, 주루 모두 리그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2년 만의 정상 탈환을 정조준했다.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구축하면서 LG는 시즌 내내 큰 기복을 보이지 않을 수 있었다.

개막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외국인 투수 요니 치리노스는 올 시즌 30경기에서 13승 6패 평균자책점 3.31을 기록, 기대를 충족했다. 특히 후반기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팀의 선두 싸움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었다.

LG의 ‘토종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임찬규는 27경기에 등판해 11승 7패 평균자책



29년 만에 우승 속원 푼 LG, 2년 만에 정상 탈환 김현수·김진성부터 송승기·김영우까지 고른 활약 마운드·타격·수비 모두 리그 최상위권 전력 구축

점 3.03으로 활약했고, 지난해부터 선발로서 경쟁력을 입증한 좌완 손주영은 30경기에 출전해 11승 6패 평균자책점 3.41로 제 역할을 해냈다.

여기에 더해 깜짝 복덩이가 등장했다. 개막 직전 팀의 5선발 자리를 꿰찬 송승기는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활약을 선보이며 단숨에 신인상 후보로까지 거론됐다.

28경기에 나서 11승 6패 평균자책점 3.50을 작성한 송승기 덕분에 LG는 선발 우려를 깨끗이 지울 수 있었다.

그리고 시즌 후반 우승 청부사로 영입한 앤더스 톨허스트는 8경기 6승 2패 평균자책점 2.86을 기록, KS에서도 1선발 노릇을 톡톡히 하며 LG에 우승 트로피를 선사했다.

지난 27일 KS 2차전에서 1¼이닝 무실점을 기록, 40세 7개월 20일의 나이로 KS

최고령 승리를 달성한 김진성은 필두로 한 불펜진도 완벽한 세대 조화를 자랑했다.

베테랑 김진성은 올해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78경기에 등판해 33홀드를 기록했고, 부상에서 돌아온 마무리 유영찬도 빠르게 20세이브를 넘겼다.

2023년 우승 직후 입대한 이정용도 시즌 중반 상무에서 제대해 마운드 중간 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우승 굿즈’라 불리는 1라운드 루키 김영우마저 시즌 내내 성장세를 그리며 마운드 한 축을 담당하며 LG는 철벽 마운드를 형성했다.

야수들은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전방위 활약을 펼치며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민고 쓰는 외국인 타자 오스틴 던은 뜻하지 않은 가을 부진에도 신뢰를 거둘 수

없을 만큼 시즌 내내 팀 타선을 이끌었다.

팀의 리드오프 홍창기가 부상으로 전력으로 이탈했을 땐 신민재가 2인분 이상을 해냈다.

신민재는 1번 타순에서 불방망이를 휘둘렀고, 빠른 발로 상대 마운드를 위협했다. 특히 타선이 전체적으로 침체했던 여름 내내 홀로 3할 중후반대 타율을 유지하며 하락세를 막았다.

문보경과 박동원은 긴 부진과 위기를 스스로 극복해 내며 2023년에 이어 올해도 KS 최고의 타자로 우뚝 섰다.

‘우승 주장’을 꾸리는 박해민은 20대 초반 젊은 선수들과의 경쟁에도 밀리지 않고 49번이나 베이스를 훔치며 도루왕까지 올랐다.

아울러 내·외야에서 매 경기 명장면을 만들어내는 박해민·신민재를 비롯해 LG 야수들은 단단한 호수비를 펼치며 마운드를 뒷받침했다.

소수의 스타플레이어가 아닌 선수단 전원의 노력이 빛났다.

LG는 2025시즌 통합 우승을 통해 현재의 결과와 미래의 전망을 모두 챙기며 ‘왕조 건립’ 가능성을 밝혔다. /뉴시스

홍명보호 유럽파들 활약 기대

14일 볼리비아 상대한 뒤 18일 가나와 격돌

이재성·이강인·김민재·황희찬 등 활약 필요해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핵심 유럽파들이 11월 A매치 명단 발표 전 ‘에이스’라는 호칭에 걸맞은 활약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홍명보호는 오는 3일 11월 A매치에 나설 태극전사 명단을 공개한다. 한국은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볼리비아와 경기한 뒤,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장소 옮겨 가나와 격돌한다.

대표팀 소집은 10일 한국 축구의 새 요람인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일정은 한국의 2025년 마지막 A매치로 많은 관심이 쏠린다.

이강인은 지난달 18일 스트라스부르전(3-3 무)은 풀타임 소화했지만, 22일 레버쿠젠(독일)과의 2025~2026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리그 페이즈 3차전 원정 경기(7-2 승)에선 교체로 단 27분밖에 뛰지 못했다.

26일 브레스트전(3-0 승)도 67분만 뛰었다. 이강인이 풀타임을 뛰지 못해 경기 컨디션이 흔들리다면, 한국 축구 대표팀에는 악재다.

이강인은 2일 오전 1시 니스와의 리그 원정 경기 이후로 5일 뮌헨(독일)과 UCL, 10일 리옹과의 리그 원정 일정을 갖는다.

김민재는 올해 백업 수비수로 활약 중이다. 주전인 다요 우파메카노, 요나탄 타에 밀린 3옵션으로 기용되고 있다.

리그도 8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단 4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지난달 25일 뮌헨글라트바흐전(3-0 승)은 90분을 뛰었으나, 30일 쾰른과의 DFB-포칼 32강전엔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봐야 했다.

최근 스리백을 실행 중인 홍명보호에 핵심인 김민재가 경기 감각을 잃는 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뮌헨은 2일 오전 2시30분 레버쿠젠과 리그 경기를 치른다. 김민재는 최대한 많은 시간을 소화하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한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울버햄튼 공격수 황희찬의 발끝에도 관심이 쏠린다.

황희찬은 지난 9월 A매치 명단에 포함됐지만 부상 이슈로 제대로 뛰지 못했다.

울버햄튼은 지난달 30일 첼시에 패배해 리그컵 16강서 탈락했으나, 황희찬은 시즌 첫 도움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그렸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마법의 국향랜드로 초대합니다

국향 HAM PYEONG 대전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10.24.(금) - 11.09.(일)

함평엑스포공원